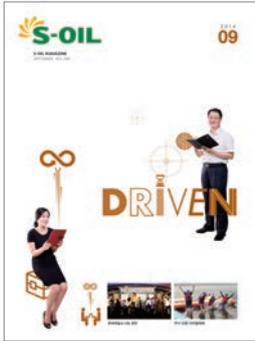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부서 단합 야외월례회



표지이야기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브랜드 마켓 중심의 내수 점유율 제고(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를 통해 회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눈앞의 현실로 바꾸어나가는 인천지사를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13~17쪽)

통권 제394호

발행일 2014년 9월 3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471)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04

주요소식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회사채 투자자 초청 기업설명회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

장애청소년 맞춤 보조기구 전달

스페셜 씨네마 데이트

울랄라세션 브랜드송 음원 제작

단신



13

최강 팀

내수시장의 성공은 긍정의 마음으로부터!

인천지사



18

소식 모아보기

프리미엄 윤활유 'S-OIL7' 캄보디아 현지 출시 행사

과학문화재단 글로벌유학생멘토링포럼 농촌봉사활동

울산지사봉사단 '우수봉사단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

대외업무팀 야외월례회

24

두런두런 수다방

대자연으로 떠난 도전과 낭만의 여정

26

햇살나눔

햇살나눔 캘린더
임직원 자녀 자원봉사 캠프 후기
햇살나눔 단신

32

No.1 주유소

50년 앞을 내다보는 주유소, 영원한 랜드마크입니다
대전 삼성주유소



34

가족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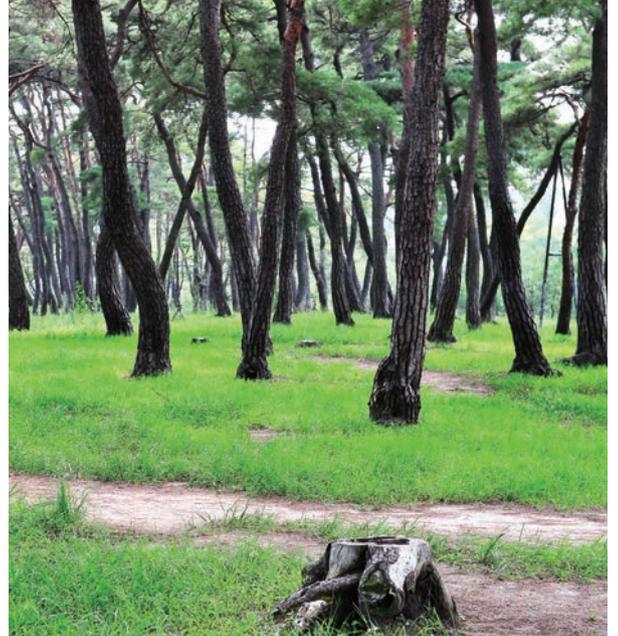
'까르르' 웃음 번지는 유머 만점 우리 가족
대구지사 이영목 사우 가족



38

걷고싶은길

바른 생각으로 사분사분 걷는 오솔길
경북 안동 유교문화길-2코스 '선비길'



42

나의 롤모델

착한 아이디어로 거둔 신선한 성공 <기업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44

야호! 축제다

과거로 떠나는 신나는 시간여행!
군산시간여행축제

46

열린 서재

길치 소설가 안나푸르나에서 길을 찾다 <히말라야 환상방향>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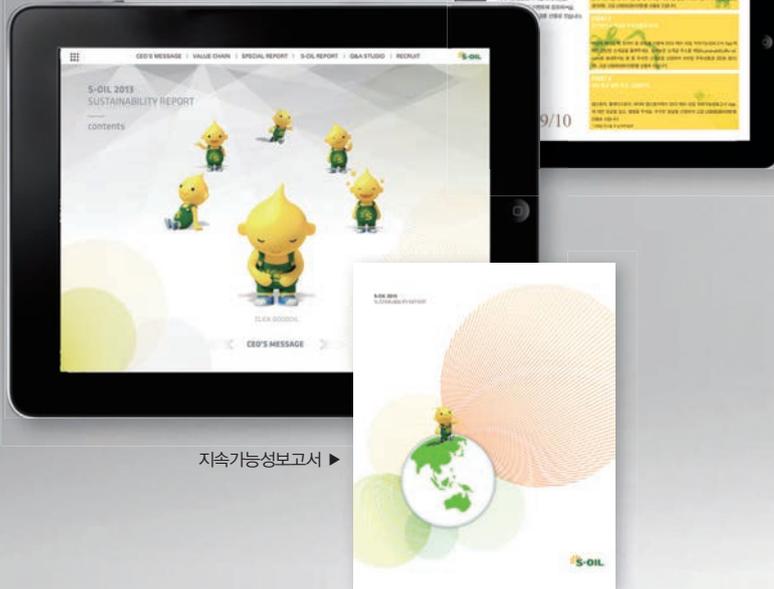
마음 읽기

드라마와는 다른 올인의 현실 <도박 중독>

50

독자광장

▼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뚜렷한 비전으로 막힘 없이 소통합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시

새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발행된 데 이어 모바일기기로 열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개시됐다. 우리회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구성과 제작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글 이승건(지속가능경영팀)

2013년 회계연도 지속가능성보고서(통권 7호)가 지난 7월말 발간됐다. 올해 보고서는 회사의 2013년 활동 및 성과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내용을 7가지 경영원칙(7 Management Principles) 기준으로 정리해 담았다. 특히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우리회사가 실천해온 경제·환경·사회적 인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을 'Special Report'로 수록해 △전략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안전경영 △준법경영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는 발간사를 통해 “회사의 비전을 ‘정유·유훈·석유화학 사업을 선도하는 가장 수익성 있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새롭게 정립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단기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회사의 노력을 전했다.

이에 더해 “에스-오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

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같은 지속가능경영 방향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이해관계자 여러분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쇄본 출간에 이어 8월 18일에는 모바일 안드로이드, IOS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로써 이해관계자별로 편의에 맞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이에 대해 최고경영진이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각 경영원칙에 따라 동영상으로 제작한 ‘Q&A 스튜디오’를 구성한 것이 이번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회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9월 초에는 회사의 리크루팅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담아 애플리케이션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에게 입사 지원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미래 투자를 이끕니다

회사채 투자자 초청 기업설명회

회사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가 온산공장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회사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미래 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였다.

글 문보림(Project금융팀)



국내 주요 회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설명회(IR)가 8월 28일 온산공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회사의 미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앞서 회사채 투자자에게 우리 회사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회사의 현황 및 성장 역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함으로써 미래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기업설명회에는 14개 기관의 회사채 투자자를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외업무팀 협조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오전 서울에서 온산 공장으로 이동한 투자자들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본관으로 이동해 홍보영상을 관람하고, 분해공정부 문현용 과장으로부터 온산공장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우리 생산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공정혁신/기획부문 김형배 상무가 배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했다.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질문에 대해 우

리 임직원들은 공시된 정보를 기초로 우리 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생산과 운용 역량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세션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현장 투어에 나섰다. 버스를 이용해 공장의 핵심설비를 둘러보고 Aromatics생산2부 조정실을 직접 방문해 실제 공정운영 및 관리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투어 장소인 제3부두에서 출하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제품선을 직접 보면서 부두 건립 및 해상 출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투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사채 투자자들은 이번 기업설명회에 대해 “정유산업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이번 기업설명회를 통해 정유산업과 에쓰-오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에쓰-오일의 우수한 생산설비와 공정운영 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쓰-오일 임직원의 탁월한 운영능

력에 대한 자부심과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자신감을 생산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소방관 가족과 함께 고귀한 희생 기억하겠습니다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

우리회사가 8월 29일 영등포소방서(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에서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식'을 열고 7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는 화재진압, 긴급구조 활동 중 순직하거나 장애를 얻어 퇴직한 소방관 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소방관 자녀들에게 각 200만~3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창재 부사장과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차흥봉 한구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학자금 수혜자인 학생과 가족, 동료 소방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전달식 중故 김기석 소방장(은평소방서)의 자녀 김빛누리(한세대3) 학생과故 박재석 소방교(용인소방서)의 자녀 박기인(아세아항공전문2) 학생이 차례로 단상에 나서 참석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이들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중에 순직한 아버지에 대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학업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했다.

이창재 부사장은 “지난 7월 광주 소방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조종간을 잡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던 소방관이 있었기에 많은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귀한 희생을 상기시켰다. 이어 “소방관의 목숨을 건 소명의식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자녀들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회사는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까지 887명에게 26억 원을 전달한 가운데, 우리회사는 지원 실효를 높이

소방관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우리회사는 올해로 9년째 소방영웅지킴이 캠페인을 지속하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글 이재훈(홍보팀) 사진 전부순



기 위해 한 가정 기준으로 지원 받는 자녀 수도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체 수혜자 중 두 자녀 이상 장학금을 지원 받는 가정이 22가구에 달한다. 🌻





장애 뛰어넘는 불굴의 꿈 지원합니다

장애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 전달

우리회사가 5년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손잡고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를 지원해온 가운데 올해는 90명의 학생에게 1억 원 상당의 맞춤 보조기구를 전달했다.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사진 전부순

우리회사가 장애청소년에게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를 전하며 미래 꿈을 향한 전진을 응원했다. 8월 21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저소득가정 장애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 전달식'에 회사를 대표해 참석한 조영일 부사장은 장애학생 90명에게 1억 원 상당의 학습 보조기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오길승 센터장(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원대상 청소년 대표 및 가족이 참석했다. 우리회사는 신체장애로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학업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10년부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손잡고 저소득가정 장애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로 5년째 지속된 후원을 통해 총 338명의 장애 청소년들이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로 학습 의욕을 높이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전통 낱이 조절책상, 휴대용 전자 독서 확대기, 조이스틱 특수 마우스, 문자 입력식 음성재생기 등으로 학생들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기구다. 행사에 앞서 전



국의 보조공학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을 추천 받아, 재활공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현장평가를 실시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영일 부사장은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장애청소년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우리회사가 묵묵히 이어오고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기를 기원했다. 🌻

프리미엄 시사회로 고객 만남의 장 열었습니다

스페셜 시네마 데이트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온 고객을 위해 우리회사가 문화 이벤트 '스페셜 시네마 데이트'를 개최했다. 감독과 배우의 무대인사는 물론, 임직원과 고객이 어우러지는 리셉션으로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글 위예림(브랜드마케팅팀) 사진 전부순



우리회사는 지난 8월 7일, CGV용산(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서 '스페셜 시네마 데이트' 이벤트를 열고 800커플의 고객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휴가철 고객들의 여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CGV용산 상영관을 전관 대관한 가운데, 보너스카드 고객과 주유소·충전소·대리점 등 거래처 고객, S-OIL 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회사 발전을 지지해온 초청 고객들은 밝은 표정으로 행사장에 속속 도착해 영화관 나들이를 즐겼다.

올 여름 큰 기대 속에 개봉한 영화 '해적'은 손예진, 김남길, 유해진, 이경영 등 국내 최고의 인기 배우가 출연하고 '댄싱퀸', '두 얼굴의 여친' 등 재

기 넘치는 작품을 연출한 이석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화제를 모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감독과 함께 배우 손예진·김태우씨가 모든 상영관에 등장해 초청고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즐거운 영화 관람기회뿐 아니라 최고 배우들을 직접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된 고객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무대인사에는 구도일 캐릭터 탈인형이 동행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을 높였다.

우리회사는 이번 행사에 우리 브랜드에 대한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홍보물 디자인에 구도일 캐릭터를 활용하는 한편 상영관 내외부에 광고를 노출하고, 고객 전원에게 팝콘과 탄산음료를 즐길 수 있는 스낵쿠폰을 제공했다. 또한 현장에 별도의 리셉션 공간을 마

련해 고객과 임직원이 격의 없는 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고객들은 이번 행사에 큰 관심과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번 행사는 프리미엄 시사회를 활용해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앞으로도 우리회사는 품격 있는 문화 이벤트로 고객 마음에 우리 브랜드를 깊이 각인하기 위해 임직원과 고객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새 브랜드송으로 고객 향해 달려갑니다

울랄라세션 브랜드송 음원 제작

우리회사가 새 브랜드송 '내가 갈게'를 제작했다. '내가 갈게'는 브랜드의 즐거움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인기 보컬그룹 울랄라세션을 보컬로 참여시켰다. 울랄라세션은 국내 최대 음악전문방송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3'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수한 실력파 그룹이다. 여기에 리쌍, 백지영, 씨스타 등 인기가수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음악 프로듀서 '이단옆차기'가 작사·작곡을 맡았다.

새 브랜드송은 밝고 친근한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어울리는 댄스곡이다. 신나고 풍부한 느낌의 펑키 리듬을 기초로 멜로디와 랩을 구성해 따라 부르기 쉽다.

노래는 총 3분 25초 길이다. 곡 서두에 기존 CM 송 멜로디가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가운데 전화 통화 음성이 나온다. '보고 싶다'는 말에 '다음에 갈게'라고 답하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새 브랜드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제목인 '내가 갈게'를 콘셉트로 문자나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활발히 소통하면서도

피상적인 관계 맺기에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사로 읊었다. 스치듯 건네는 위로의 말보다 '내가 갈게'라며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 속에 우리 브랜드가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음은 물론이다. 고객이 브랜드송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접하도록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주유소를 배경으로 울랄라세션이 브랜드송을 부르는 가운데, 중세

우리 브랜드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와 꼭 맞는 브랜드송 '내가 갈게'가 신규 제작돼 9월 25일 발표된다. 멜론, 소리바다 등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새 브랜드송은 광고·프로모션·매장배경음악 등에 활용돼 고객과 만나며 우리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글 강주혜(브랜드마케팅팀)



와 현대를 넘나들며 연인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와 코믹한 연기가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 조화를 이룬다. 특히 뮤직비디오에는 고객 이벤트를 통해 선정한 고객이 출연해 의미를 더했다. 새로 제작된 브랜드송 '내가 갈게'는 앞으로 브랜드 활동과 사내의 홍보 채널에서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



브랜드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S-OIL NEWS



울산복지재단 추석맞이 이웃돕기 1억 2천만 원 위문품 전달

우리회사가 추석을 맞아 이웃돕기 쌀 1천971포와 성금 2천만 원을 포함해 1억 2천만 원 위문품을 쾌척했다. 지난 9월 1일 울산시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김용연 전무는 김기현 울산시장과 만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한 쌀은 저소득가정과 보훈가족 1천 971세대를 비롯해 무료급식소 4개소에 전달된다. 우리회사는 2007년 울산복지재단을 설립해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 활동, 시민 숙원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이웃사회를 위해 기부한 금액은 5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홈 > e쿠폰 > 편의점/주유권 > 주유권



모바일상품권 G마켓 판매 개시

우리 주유상품권을 휴대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S-OIL 모바일상품권'이 G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우리회사는 모바일기기를 통한 상품 구매와 거래의 보편화에 발맞춰 8월 21일 모바일상품권을 내놓고 국내 오픈마켓 업계 1위인 G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액면가 대비 2%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돼 알뜰한 소비를 원하는 고객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상품권은 3만원권, 5만원권 2종으로 출시됐으며, 아래 경로로 구입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 구입 경로

- 1 G마켓 홈페이지 www.gmarket.co.kr ⇨ '도서·티켓·여행·e쿠폰' ⇨ '상품권/e쿠폰' ⇨ '편의점/주유권' ⇨ 'S-OIL 모바일상품권' 선택
- 2 G마켓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주유권' 검색 ⇨ 'S-OIL 모바일상품권' 선택

난방유 대표전화 주문접수 서비스 시행

우리회사가 대표전화(1588-5151)를 통한 난방유(등유) 주문접수 서비스를 개시하고, '부모님께 사랑의 등유를 선물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부모사랑 효(孝) 캠페인을 전개한다. 등유는 주택 난방용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서민연료로, 최근 수요가 줄어 취급 및 배달하는 주유소가 크게 감소했다. 이 가운데 우리회사는 고객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계열주유소의 수익증대를 돕기 위해 대표전화를 통한 난방유 주문접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고객이 일일이 난방유 배달판매 주유소를 찾을 필요 없이 우리회사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전담상담사가 배달 장소를 고려한 최적의 주유소를 찾아 연결해준다. 캠페인 일환의 사연 공모 이벤트도 진행된다. 부모님의 사랑과 정을 주제로 한 사연을 공모해 매일 우수작 1명을 선정하고 주유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제공한다.

서비스 주요 절차

- 1 대표전화 (1588-5151) 를 통한 난방유 주문 접수
- 2 본사 고객센터에서 배달 최적 주유소에 고객 주문정보 전달(유선)
- 3 주유소에서 고객과 연락하여 주문내용 확인 후 배달·결제



캠페인 사연 응모

보너스카드 홈페이지 www.s-oibonus.com '부모사랑 효 캠페인'

주유비 리워드 '구도일 패밀리 1·1·1' 새 시즌 돌입



주유소·충전소 현장에서 즉석 당첨 확인을 통해 1년, 1개월, 1회 주유비를 지급하는 '구도일 패밀리 1·1·1' 캠페인의 세 번째 시즌 이벤트가 9월 말부터 올 연말까지 지속된다. 이 행사는 전국 계열주유소·

충전소에서 3만 원 이상 주유 시 즉석에서 보너스카드 영수증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유비 리워드 이벤트다. 1년, 1개월, 1회 주유비 등 최대 300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매달 말 미당첨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가 추첨을 시행해 다시 1년, 1개월, 1회 주유비를 돌려준다. 특히 세 번째 시즌을 맞아 3천 원 모바일주유권 당첨자를 월 6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

'영수증' 현장 즉석 당첨의 행운

3만원 이상 주유·충전한 뒤 영수증 당첨 확인

행사기간 | 2014 9월 1일 ~ 12월 31일



인사동정

보직변경

8.19 이하영(일반사무직3급.인력개발팀)→HR기획팀

8.25 송민순(2급.용인지사)→직영주유소관리팀(에버랜드주유소 파견)

9.1 황탁기(2급.경영개선팀)→생산구매지원팀 곽영훈(전문차장.생산구매지원팀) 박만수(4급.구매팀)→프로젝트구매부문 허윤희(5급.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 박현배(3급.중부네트워크관리팀-강남지사 파견)→중부네트워크관리팀

해외유학 파견 복귀

8.11 양승직(4급.인력개발팀 부)→영업전략팀

입사

8.18 최광현 남상화(4급.프로젝트기술부서)

9.1 김영준(3급.TSC개발팀) 유인호(4급.프로젝트기술부문) 우소원(5급.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 장세원(5급.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 안병선(5급.이익개선팀)

정년퇴직

8.31 문점성(3급.업무부 보안과) 조덕화(3급.브랜드마케팅팀-수원지사 파견)

퇴직

8.12 민제홍(3급.석유화학제품팀) 이일우(5급.수급운영팀)

8.27 이길수(인천지사)

결혼

8.30 임형준(동경지사)

9.13 김준일(석유화학운영팀)

부음

8.2 이동화(설계3과) 부친

8.4 권범진(연료연구팀) 빙부 서해봉(품질관리2과) 조모

8.14 김용진(LPG팀) 빙부

8.16 이재춘(저유관리팀) 빙부

8.17 이영아(생산T지원팀) 부친

8.23 임학빈(목포지사) 모친

8.24 한병채(품질관리1과) 모친

8.28 안태남(검사1과) 부친

8.29 박찬호(안전과) 부친

8.30 김택언(제주저유소) 모친

전정도(장치2과) 빙부

9.1 홍태기(총무과) 부친

9 Corporate Initiatives



브랜드 마켓 중심의 내수 점유율 제고

- High margin portfolio through RUC and olefin investment
 - Capacity expansion through overseas partnership
- On-going business innovation within core and beyond

• 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

- Overseas stable customer base expansion via partnership
 - 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
 -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
- 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
 - 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



내수시장의 성공은 공정의 마음으로부터!

인천지사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태구·나종진 사우, 영홍섭 지사장, 임화정·정동진 사우,
조우현·이세웅·장홍진·신해식·최윤진·박동일 사우

내수 판매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회사는 내수 점유율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다. 본사의 전략수립에 더해 각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판매지사의 헌신과 노력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실현해 나가는 인천지사는 인천과 경기 서부를 기회의 땅으로 보고 오늘도 현장 곳곳을 누빈다.



10개월 연속 목표
100% 초과달성,
거래처와 직원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4대 정유사의 뜨거운 경합지역

“인천지사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 서부 지역의 영업을 총괄합니다. 이 지역은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공단이 밀집한 지역이라 유류 수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흥섭 지사장이 이끄는 인천지사는 내수 영업의 주요 격전지를 관할한다. 인천에는 우리회사를 비롯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저유소가 위치하고, 단일 공단이 아닌 공단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7월에 이르기까지 인천지사는 누적영업성과 1위를 달성했다. 작년 3/4분기 성과개선상, 4/4분기 성과우수상에 이은 쾌거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영흥섭 지사장이 부임하던 작년 2월까지만 해도 인천지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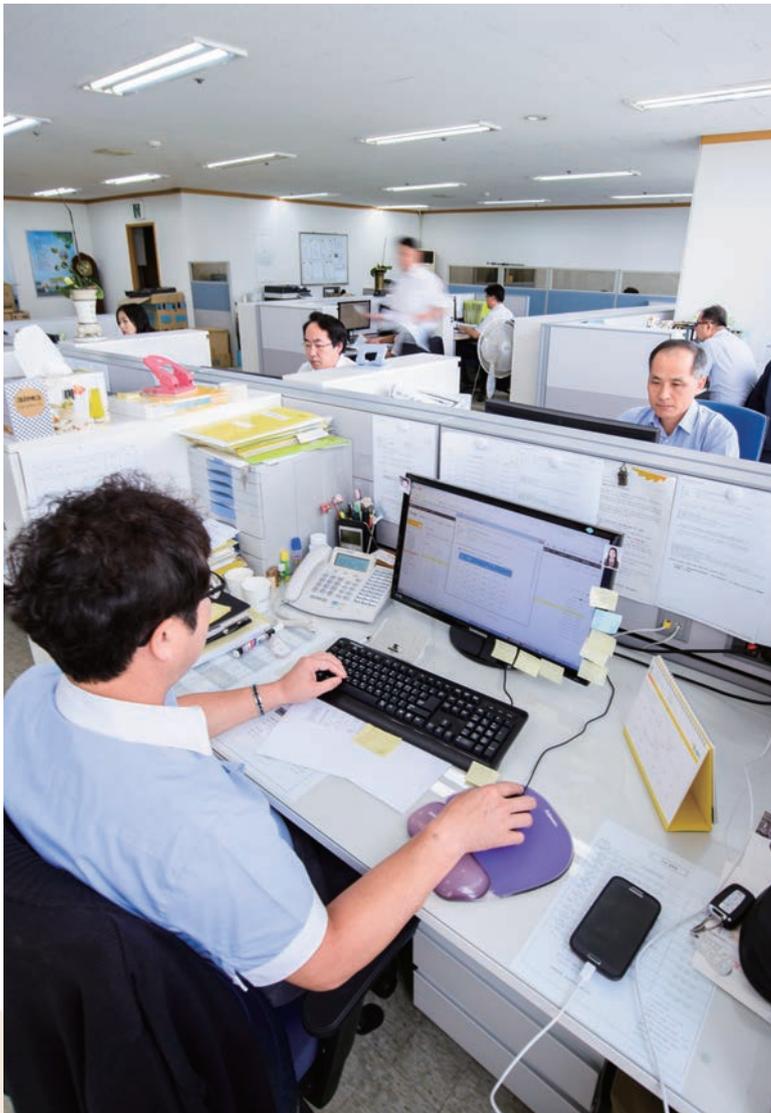
큰 위기를 겪고 있었다. 지사의 직원들이 잘못해 서가 아니라 50개 주유소를 합친 것과 맞먹는 물량을 싸게 파는 대형주유소가 지역 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인천지사가 영업·관리하는 주유소가 82개소인데 그 중 37개소에 이르는 주유소가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상황. 시장점유율은 하락세였다.

좋지 않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하나였다. 본사가 지원하고, 주유소는 자체적으로 지구책을 강구하며, 지사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주유소의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것. 일부 고가정책을 펴던 주유소에 와우(WOW)프로그램을 권하고 주유소는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가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한뜻으로 대화하고 공감한 결과였다. 마침내 2013년 10월, 영업은 대형주유소 개업 이전의 본궤도에 올

랐다. 이후부터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다. 10개월 연속 지사에 주어진 목표에 100% 초과 달성했다.

“아직 정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 있지요, 우리 브랜드의 남부지역 판매량은 총총한 데 비해 수도권지역은 다소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기회와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 또한 이곳입니다. 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파고들 여지가 큼니다. 본사의 투자와 지사의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생산능력에 걸맞는 내수시장 점유율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내수 영업의
선봉에 서겠다는 결의로
뛰겠습니다
☺



전국에서 판매목표가 대구지사와 함께 가장 높지만, 인천지사 직원들은 더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자신감을 보인다.

직원의 기를 살려라

“부임해서 처음 한 일이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었습니다. 크게 네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관리 파트, 판매총괄 파트, 조직활성화 파트, 중점프로젝트 파트지요. 특히 조직활성화 파트를 만든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직원이 기가 죽어있으면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염홍섭 지사장은 강조한다. 영업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의 일. 풀죽은 사람에게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조직활성화 파트를 별도로 만들었다. 경륜 있는 조우현 사우에게 파트를 맡겼다. 조우현 사우는 직원 사기가 저하된다 싶으면 내부 행사를 기획해 보고한다. 지사장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점프로젝트 파트에는 브랜드 없이 운영되는 주유소를 공략하는 업무를 맡겼다. 주유소 거래처 영업에서 나아가 파이를 확대하는 일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유사기름 근절을 위한 인력도 이 파트에서 별도의 인원을 두고 관리한다. 판매총괄에서는 이러한 판매사항을 총괄하고, 관리 파트에서는 가격관리와 감사 관련 업무, 주문·출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한 마디로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다.

“지사장이 파트장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각 파트장이 해당 분야에서는 지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파트의 아젠다가 불거지면 파트장이 전 직원을 불러 회의합니다. 지사장은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죠, 파트와 직원의 옆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얼마 전에는 직원들이 SBS TV 드라마 <아인시대> 세트장 내에 있는 캠핑장에서 야외 바비큐 파티를 했다. 저렴하고 분위기가 좋아 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사기가 크게 올랐다.

영업은 교류다

염홍섭 지사장은 '우리회사의 가격투명성은 최고'라고 전한다.

"가격결정 주요회의에 지사 직원도 참여합니다. 본사와 지사간의 직원교류제도가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당연히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지만, 가격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나면 이해합니다."

본사와 지사와의 교류는 주유소 거래처에 보다 합리적인 설명의 기회를 준다.

"거래처마다 만나는 형태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유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판매와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시장 동향에 대해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사에서는 정유사의 흐름을 공유하고 주유소 거래처에서는 현장의 애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지점이 생긴다. 영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뿐이라고. 본사와 지사, 거래처 주유소의 교류가 내수 점유의 바탕을 견고히 하고, 이를 초석으로 삼아 더욱 성장하리라는 조심스러운 예측과 함께 염홍섭 지사장은 각오를 밝혔다.

"우리 지사의 구호가 있습니다. '정상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고! 고! 고!!' 우리 인천지사가 우리 회사 내수 영업의 선봉에 서겠다는 자세로 뛸 겁니다." 🌻



MINI INTERVIEW

염홍섭
지사장



인천지사는?

▶ 총 직원 수는 지사장 포함 12명입니다. 판매목표가 대구지사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하나로 뭉쳐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의 주유소 82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지사 목표를 100% 초과 달성했습니다. 우리회사의 중요한 목표인 내수 점유율 증진의 선봉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사만의 영업노하우는?

▶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영업은 맨파워가 생명입니다. 직원들의 기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의 지원, 지사의 활발한 영업, 거래처 주유소의 응답이 조화를 이루면 못할 게 없습니다. 시장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얘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담당자와 지사장이 함께 문제가 생긴 곳에 찾아갑니다. 아무래도 지사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해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해결과정을 담당자가 함께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종 해결과 해결 이후의 과제는 담당자의 몫입니다. 공은 당연히 담당자의 몫입니다.

각오와 남기고 싶은 말은?

▶ 우리 지사의 구호가 '정상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고! 고! 고!!'입니다. 우리는 아직 정상에 서지 않았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달릴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를 펴고 활동하는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작은 성과에도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큰 성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공중파TV에 방송된 행사 장면

무한가능성의 시장 끝없이 이어질 성공스토리

프리미엄 윤활유 'S-OIL7' 캄보디아 현지 출시 행사

글 권대웅(윤활기유국내영업팀)

캄보디아는 대중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세계적인 윤활유 브랜드가 각축을 벌이는 기회의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윤활유 신제품인 'S-OIL7'을 앞세워 출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프리미엄 윤활유 신제품 'S-OIL7'이 지난 5월 출시된 가운데 우리회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제품 출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8월 13일 프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나호텔에서 우리회사는 초청고객 300여 명을 모시고 새 제품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장 주요 고객뿐 아니라 캄보디아 환경부장관과 총리 비서관, 사회부 차관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우리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를 축하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내빈 면면뿐 아니라 행사가 진행된 캄보디아나호텔 역시 현지의 유서 깊은 장소이기에, 이곳에서 우리 제품의 출시를 알린다는 점에서부터 큰 상징성을 드러냈습니다. 행사는 우리회사와 신제품 'S-OIL7'을 비롯한 윤활유 브랜드를 소개하는 순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우리회사가 캄보디아에 진출한 계기를 소상히 알리고 현지 시장이 우리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단상에 나선 세이 사말(Say Samal) 환경부장관은 축하 가운데 "에쓰-오일은 친환경 제품을 지향하는 젊은 회사로서 최고의 품질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내용은 캄보디아 공중파TV채널인 핑 미아스(Heang



Meas), 씨엔씨(CNC), 바이온(Bayon) 등 주요 3사 TV를 통해 방영했습니다. 이어진 만찬 행사에서도 현지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우리회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 우리 브랜드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캄보디아 현지 시장상황은 우리회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프놈펜 시내에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며, 시민들은 모터사이클을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터사이클 유통유 공급을 겨냥해 세계적인 브랜드를 포함한 다수의 브랜드가 현지 시장에 진출한 가운데 우리회사의 '드래곤' 브랜드도 함께 경쟁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와 더불어 모터사이클용 'S-OIL7' 제품을 개발해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유통유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프놈펜 시내에서 우리회사 현수막과 옥외광고물이 종종 눈에 띄고, 현지 카센터에 제공한 우리 브랜드 사인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회사 CI가 인쇄된 파라솔을 제작·제공함으로써 현지 기후를 고

려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활동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케팅 전략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브랜드가 캄보디아 현지 고객의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아나가기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성공 스토리로 기록돼 동남아시아 곳곳에 우리 브랜드가 진출하는 길을 활짝 열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



한국문화 배우고 농촌마을도 돕고!



과학문화재단 글로벌유학생멘토링포럼 농촌봉사활동

글 강영옥(운영지원팀)



글로벌유학생멘토링포럼의 유학생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농촌마을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봉사로 한국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일손이 모자란 농가를 도우며 참가자들과 우애도 쌓는 일석삼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하는 글로벌유학생멘토링포럼의 참가자들이 8월 22일 충북 청원시 농촌마을에 봉사활동을 나섰습니다. 글로벌유학생멘토링포럼(Global Students Mentoring Forum, 이하 GSMF)은 한국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출발해 현재는 광범위하게 다양한 나라의 유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은퇴한 과학자 및 현직교수, 기업인들이 멘토로 나서서 유학생들 전반에 걸친 지원과 따뜻한 격려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고 모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GSMF의 뉴스레터를 만들어 공유하는 등 뜻깊은



인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맺은 우호적인 관계는 각 유학생이 속한 나라와 한국이 협력기회를 모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GSMF 참가자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멘토들과 인연 다지기, 유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한국 기업체 방문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에는 3박4일 전후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번 봉사활동은 우리 농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기회로 마련됐습니다. 봉사 현장에는 유학생 46명과 이들을 돕기 위해 동참한 우리 대학생 7명 등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다른 봉사자들과 힘을 모아 비닐하우스 제초, 비닐 씌우기, 공방 제초, 순 자르기 등으로 농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일정에도 아랑곳 않고 성심을 다해 활동하면서 참가자들과 진한 우애도 나눴습니다.

가득이나 일손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촌 현장에서 유학생들이 활기차게 농가 일을 도우며 한국을 이해해 나가는 모습에 농촌 어르신들은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안팎으로 예외 없는 탄탄한 팀워크

울산지사봉사단 '우수봉사단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

글 이정현(울산지사)



울산지사봉사단이 8월 25일 울산시사회복지관협회가 개최한 자원봉사대회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진정어린 나눔을 지속한 공로로 이뤄졌습니다. 일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 밖 지역사회에서도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울산지사는 2013년 4월부터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복지관을 통해 인연을 맺은 가정에 배달하는 도시락만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손으로 드린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봉사에는 진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신념 아래 지사 식구들이 한뜻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도시락 배달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수요일을 봉사활동일로 정하고,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위클리 패밀리 데이(Weekly Family Day)를 이용해 도시락 배달과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지사봉사단은 겨울철이면 해당 복지관을 통해 연탄나눔을 실시해 소외된 이웃의 어려운 삶 속에 함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고객 최점점에서 일하기에 더욱 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히 우리 브랜드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드높인다는 자부심을 갖고 봉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보람찬 결실까지 맺으니 봉사 의지가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야겠다는 결심도 재차 다져봅니다. 나아가 국내 영업 현장에서 매일을 치열하게 사는 우리 지사 식구들이 이번 표창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탁 트인 자연에서 활짝 연 소통의 문

대외업무팀 야외월례회

글 김영우(대외업무팀)

대외업무팀의 야외월례회가 8월 23~24일 이틀간 제천과 문경에서 열렸습니다. 각종 레포츠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부서원 간에 단단한 유대감을 쌓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게
찍어줍시다~



대외업무팀
사랑해요♥



이양호~
스트레스다워
날려버려!



대외업무팀은 8월 23~24일 이틀 동안 제천과 문경으로 야외월례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모임은 그동안 업무 때문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고, 부서원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앞으로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최근 주말마다 비가 내린데다가 출발 전날 하늘이 흐려 모든 부서원들이 날씨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월례회 당일에는 날씨가 정말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흑염소버섯전골'로 원기회복까지 한 저희 일행은 첫 행선지인 제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야외월례회에는 활기찬 레포츠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첫날에는 청풍호반에서 시원하고 짜릿한 수상레포츠로 막바지 더위를 날려버렸습니다. 저녁에는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소통의 자리를 가져 그동안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일했던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문경에서 와이어를 달고 하늘을 비행하는 '짐라인'을 탔습니다. 바람을 사이로 공중을 가르는 레포츠에 모두들 가슴이 '뽕' 뚫리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대외업무팀은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지만, 언제나 막힘없는 소통으로 구성원 간의 세대 차이가 발 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포트 중심의 야외월례회를 계획하면서는 '모두가 즐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하는 레포트임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미숙한 서로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구성원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주저하는 동료와 선후배를 격려하고 돕기도 하면서 한층 더 돈독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웃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훌훌 떨칠 수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개인사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밤은 대외업무팀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틀 짜인 교육이나 훈련 못지않게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업무현장으로 돌아온 첫날에는 팀원들 모두 온몸의 근육통을 호소하며 다시 한 번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던 '힐링'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런 좋은 기회를 다시 만들어보자 다 함께 다짐했습니다. 🌿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광활한

대자연이

대자연으로 떠난 도전과 낭만의 여정

좌충우돌 호주여행

전 세 영 품질보증팀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입사 후 첫 집중휴가 여행지는 갑작스럽게 정해졌다. 이야기는 10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는 봄과 여름 사이에 유럽에 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동기로부터 특가 프로모션 비행기표가 나왔으니 그것부터 사라는 말을 듣고 덜컥 표를 사면서 계획에 없던 호주여행이 정해진 것이다. 7월이면 남반구는 겨울이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비행기표 가격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비행기표만 예약했지 숙소며 여행프로그램이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각자의 회사생활에 전념했던 우리는 출발 일주일 전에야 허겁지겁 6인실 Backpackers 숙소를 예약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었다. 여행 프로그램은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래프팅, 프레지어아일랜드 투어로 구성했고 세부 일정은 현지에서 부딪혀가면서 완성하기로 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는 호주 동부의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녔다. 시드니에서 사흘, 하이베이에서 하루, 프레지어아일랜드에서 이틀, 브리즈번에서 하루, 케언즈에서 사흘, 멜버른에서 사흘 등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13일의 일정이었다.

호주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시의 모습보다는 대자연의 풍경이다. 특히 1박2일로 짠 프레지어아일랜드 투어는 우리 여행의 백미였다. 접근성이 좋지 않기에 오히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프레지어아일랜드에서 우리는 훼손되지 않은 대자연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었다. 쿠란다 기차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열대우림을 통과할 때 마주친 풍광도 인상적이다. 수많은 건설노동자의 희생으로 1800년대 후반에 완성된 기차길을 지나며 엄청난 규모의 배런폭포 등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우리나라보다 70배 이상 훨씬 넓은 땅에 인구는 반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호주는 광활하게 대자연이 펼쳐져 있었고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다.

호주의 3대 레포츠인 스카이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래프팅도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가격에 즐겼지만 멋진 경치 속에서 즐겼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느껴졌다. 래프팅의 경우에 케언즈 털리 강에서 즐겼는데, 순수하게 래프팅 시간만 4~5시간이었고 물길을 타고 보는 풍경마다 예술작품 같아서 대만족이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강과 해변에서 수영을 했고 같이 투어하는 사람들과 즐거

운 시간을 보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길벗!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 역시 기억에 남는다.

음식은 대부분 입에 맞지 않았다. 현지에서 추천받은 곳을 중심으로 돌아다녔는데 음식이 기름져 실망한 적이 많았다. 여행 후반부에는 숙소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곤 했는데, 멜버른의 400 Gradi 피자만큼은 기억에 남는다. 멜버른을 여행한다면 피자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조니 디 프란체스코가 운영하는 이 식당에 꼭 들러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멜버른에서 야경을 보며 여행을 마무리했다. 비록 출발 전에 여행준비가 잘 되지 않아 여행지에서 좌충우돌 여러 상황과 맞닥뜨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만족이었다. 이런 격언이 떠오른다.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사지 말고, 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 무조건 가라!' 

- 1 스카이다이빙을 하며 바라본 호주의 너른 평원 
- 2 열대 우림을 통과하는 쿠란다 기차 
- 3 케언즈 털리강을 따라, 신나는 래프팅
- 4 여행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즐거운 시간



이웃의 마음 밝히는 빛 '햇살나눔'입니다

2014년 8월 전사 각 단위 햇살나눔

유난히 비가 많이 온 8월. 흐린 날씨에도 마음만은 흐려지지 않는 햇살나눔봉사단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기 위해 봉사현장 곳곳을 누볐다.



사랑의빵만들기봉사팀 봉사팀은 임직원 자녀들과 함께 달콤바삭하고 촉촉한 초코칩쿠키를 만들어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가정과 아동생활시설에 전달했다.



9



12



분해1부 봉사단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여러 모양의 토피어리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18

윤희생산부 봉사단은 울산동구청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과 함께 울산그린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환경의 소중함과 보존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



정유생산부 수연재활원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한 봉사단은 인형극을 관람하고 다과를 함께 하며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22



분해3부 봉사단은 해밀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함께 '숲에서 만난 어깨동무 가족'이라는 주제로 식물원 나들이에 나섰다.

23



계전부 우리지역센터아동들과 함께한 봉사단은 여섯 번째 프로그램 봉사료 '게임하기'를 진행했다. 모둠별 보드게임 대항전을 하며 재미있고 신나게 즐겼다.



안전환경부문 봉사단은 행복학교실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전통연염색을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재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매우

봉사의 기쁨 배운 시간

임직원 자녀 자원봉사 캠프 후기

글·자료제공 윤수현(대외업무팀)

공장 임직원 자녀들이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통해 봉사의 참된 정신을 배우고 직접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의 깊은 뜻을 몸소 체험한 이들은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소감을 적으며 한 뼉 성장한 자신을 확인했다.

도 안되어 참여할 수 있는 계를 준 이 캠프에
여하지 못했지만, 대학생이 되어서 스텝 형, 오빠가
지속성'은 물론 말 그대로 주중, 많이 하면
는 김만으로도 그 의미가 클 것 같아 감사하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참봉사의 뜻 생각했어요”

임직원 자녀
‘청소년 자원봉사 서바이벌 캠프’ 참가 후기

조 상 준 신정고등학교 3학년
분해2과 조연국 사우 자녀

처음 본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캠프에게 정말 감사하다! 비록 지금까지 캠프에 두 세 번 밖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훗날 대학생이 되면 꼭 스테프 형, 오빠로 참여해보고 싶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앞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게 제일 좋을 테지만, 먼저 마음속에 봉사의 뜻을 담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봉사활동을 권유하고 싶다. 이번 캠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

이 채 윤 천상중학교 3학년
전기과 이상록 사우 자녀

처음 참가한 자원봉사였다. 1박2일이라 걱정도 많이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었고, 많은 친구, 언니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기분 좋았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봉사하고 싶다. 참된 봉사의 의미를 다른 곳이 아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정말 재밌고 보람찬 1박 2일이었다.

김 두 하 신정중학교 3학년
RUC관리팀 김대문 팀리더 자녀

시원한 배냇골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자원봉사 캠프를 다녀왔다. 처음에는 귀찮은 마음에 짜증이 났었지만, 곧 문장 만들기, 지화, 사진 퍼즐 등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그런 마음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이 캠프를 통해 봉사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는 매우 쉽고 재미있는 활동임을 알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 🌻



ㅎㅎㅎ
우리 조 왜 이렇게 인기였지



난 너희를 안내할
대학생 봉사자야



정신이 번쩍,
드루오~

이웃 찾아가는 성실한 발걸음

햇살나눔 활동 이모저모

임직원의 급여우수리로 희귀 난치질환 어린이들의 치료를 돕는 나눔사업이 지속되는 한편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으로 도심의 문화 오아시스를 열었다.

밝은 웃음 찾아주기 캠페인 ‘급여우수리’ 나눔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우리회사가 2008년부터 임직원 급여우수리 나눔을 통해 지원해온 희귀 난치질환 어린이 돕기 캠페인의 70번째 수혜자가 나왔다. 8월 18일 금동호 준법지원팀 리더와 박재인 법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전서현 아기와 가족을 만나 치료비 500만 원과 특수분유를 전달했다. 올 3월에 태어난 서현이는 6월 25일 카사이수술을 받았다. 담도폐쇄증의 1차적 수술인 카사이수술에는 약 400만~500만 원이 필요하다. 올 7월 기준으로 현재 급여우수리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임직원은 1천593명으로, 이들이 월 급여 중 1천 원 이하 금액을 모아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회사 지정기탁금을 포함해 6억 9천500만 원에 이른다.

• 급여우수리 나눔 기부 참여 문의 운영지원팀 신영철 (#5063)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SBS 김정택 오케스트라' 공연

글 원유진(운영지원팀)

8월 28일, 본사 사옥 앞에 위치한 공할철도역 광장에서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SBS 김정택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뮤지컬 & 시네마 갈라콘서트'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 티켓을 받은 지역주민을 비롯해 우리 임직원과 인근 직장인 등 800여 명의 관객이 모였다. 폭우를 쏟던 구름이 걷히고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드러낸 날씨 속에 산책에 나선 가족 단위 관객들이 많았다.

우리회사는 2011년 6월 신사옥 입주와 함께 문화나눔네트워크 '시루'와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을 약속한 이래 본사 공간을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국악·오케스트라·밴드 등 뮤지션과 인형극·미술 쇼·퓨전 타악·코미디언 퍼포먼스 등 예술가들을 초청해왔다. 본사 사옥 거점의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무료 공연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봉사 참여 문의 운영지원팀 강영옥(#5062)





50년 앞을 내다보는 주유소 영원한 랜드마크입니다

대전 삼성주유소

대전엑스포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1994년 9월, 대전 삼성주유소가 문을 열었다. 50년 앞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었고,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운영하며, 친절로 고객을 맞았다. 2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주유소 시설과 고객을 대하는 태도 모두 여전히 반짝반짝 빛난다.



▲ 서정준 대표

50년 뒤에도 여전히 한결같도록

1994년 9월, 대전 삼성주유소 서정준 대표는 '50년 이상 운영하는 주유소'를 목표로 주유소를 개업했다. 50년 동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하나는 건물에 대한 원칙이다. 50년 동안 사람들이 드나들 곳이니만큼 튼튼함은 물론 의미 있는 건물이어야 했다. 실력 있는 건축가를 수소문해 디자인을 맡겼다. 건물의 주요 기둥은 H빔의 빈

공간을 메운 사각빔으로 설치했다.

또한 건물의 각 디자인요소에 의미를 담았다. 3층까지 이어지는 벽면에는 원통형 철판을 설치해 하늘로 오르는 용을 연상하도록 했다. 지붕 역할을 하는 케노피는 위에서 보면 대전엑스포를 상징하는 꿈돌이 모양이다. 마감재로는 녹이 슬지 않는 당시 최고 품질의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는데, 지금도 마른수건으로 닦기만 하면 새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 지은 지 20년

이 지난 지금도 새 건물로 보일만큼 만듦새가 탄탄하다.

또 하나는 정품 취급의 원칙이다. 에스-오일 정품에 대한 서정준 대표의 믿음은 확고하다.

에스-오일 정품만 취급하는 주유소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고객들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삼성주유소를 다시 찾았다. 대전에는 연구단지가 많고 주변 주택가에는 고학력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 정품의 옥탄가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 단 한 명의 고객도 불편하지 않도록

마지막은 운영원칙으로 사람간의 신뢰와 의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고객과 직원 모두가 불편하지 않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 삼성주유소는 지난 2012년 5월 셀프주유소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는 4명이다.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직접 주유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고 기름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데, 많이 확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주유기 사용법을 몰라 불편함을 겪는 고객이 많다. 그래서 삼성주유소에서는 방문하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직접 넣을 건지, 넣어드릴지를 묻고, 대신 주유해드리기도 한다. 직원이 먼저 다가가는 셀프주유소인 셈이다. 자동세차기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사전 애벌세차와 이용 후 마른걸레 세척서비스가 이어진다. 다른 셀프주유소가 최소한의 인원이 상주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고개를 내미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삼성주유소는 직원에게도 근무만족도가 높다. 대표적인 게 직원식당 운영. 4명의 직원을 위해 매 식사를 직접 조리해 제공한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역시 직원이다. 그러다 보니 직원은 모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도 단기에 끝내는 법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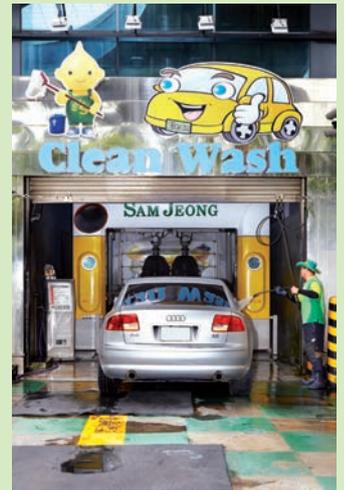
올 9월 20주년을 맞는 삼성주유소는 목표한 50년의 4할을 채웠을 뿐이다. 지금도 직원들에게 50년 앞을 생각하라고 강조한다는 서정준 대표

는, 여전히 20년 전과 같은 기본원칙과 친절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고 있다. 

삼성주유소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대덕대교를 넘어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만년네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연다. 주유소 상주직원이 4명, 직원식당 직원이 1명이다. 80~90% 승용차가 이용하고 있는데 셀프주유소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직접 기름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다. 고급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자동세차기를 이용할 때 흠집이 생길까 걱정하게 되는데, 꼼꼼한 애벌세차를 해주고 있어 흠집 날 걱정이 없다. 손걸레로 한참 동안 꼼꼼히 세차를 마무리해주는 서비스를 받다 보면 만족도는 최고조에 이른다. 단연 대전의 랜드마크 주유소다.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384 (만년동 290)
☎ 042)488-3326




한결같은 친절과
기본원칙으로 내다보는
새로운 50년




‘까르르’ 웃음 번지는 유머 만점 우리 가족

대구지사 이영목 사우 가족



13살 첫째 아들 도현이, 7살 둘째 아들 인규, 4살 막둥이 셋째 딸 승인이. 터울이 크지만 서로 잘 어울리고 쾌활한 세 아이 덕분에 아빠, 엄마는 웃는다. 맛집에 찾아가기보다 놀이방이 있는 음식점을 찾아야 했던 다섯 식구가 추억만들기에 나섰다.

이영목 사주의 가족이 패밀리 뷔페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이영목 사주와 두 아들은 같은 디자인의 티셔츠를, 아내 김정옥씨와 딸은 같은 색의 옷을 입었다. 이벤트에 참여해 온 식구가 함께 식사하고 촬영한다는 걱정과 설렘이 옷차림과 표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내 김정옥씨는 놀이방부터 찾아갔다.

“음식점 내에 있는 놀이방치고는 규모가 크네요. 담당 선생님까지 있어요. 안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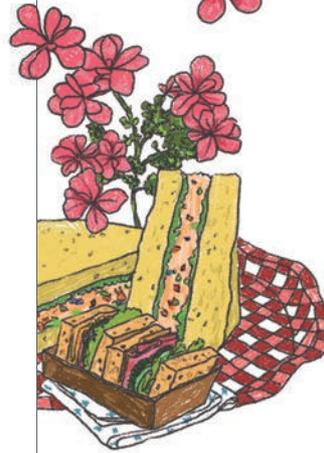
아이들이 많아 어느 음식점에 가도 놀이방부터 둘러보게 된다는 김정옥씨의 표정이 그제서야 밝아진다.

아이들은 한 자리에 모이기가 무섭게 흩어졌다. 첫째 아들 도현이는 듬직하게 자리를 지키곤 했지만, 활달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둘째 아들 인규는 가만히 자리에 앉는 법이 없다. 오빠들을 닮아 활달하다는 막내딸 승인도 제법 오빠들 참견을 한다.

가족은 물론 남도 즐겁게 하는 유쾌한 가족

“첫째는 13살, 둘째는 7살, 막내는 4살입니다. 첫째 낳았을 때만 해도 둘째 낳을 생각이 없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딸은 꼭 낳아야 합니다.” 이영목 사주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딸을 꼭 낳아야 한다’는 말을 나지막이 내놓는다. 경상도 남자의 딸 사랑은 외동딸 하나 낳고 ‘딸바보’를 자처하는 다른 아빠들의 말과는 울림이 다르다. 가족은 물론 양가 부모님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인지 갖은 애교에 틈만 나면 가족에게 뽐뽐하려고 하는 막내딸 승인이. 두 아들과 달리 노래와 율동으로 온 가족을 즐겁게 한다. 첫째는 책을 좋아하고 신문을 즐겨 읽고 운동도 좋아하는 듬직한 만이는 독서량이 많아서인지 상식이 풍부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만물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전문 CEO가 꿈이고 워렌 버핏을 존경한다. 둘째는 아빠를 닮아 꼼꼼하고 대인관계가 좋다. 축구를 좋아하고 월드컵에 나가는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다. 축구수업이 있는 날이면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 준비할 정도. 두 오빠 역시 막내를 매우 아끼고 예뻐한다.

“셋이나 낳을 줄은 몰랐지만 태생적으로 아이를 아주 좋아해서인지 다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둘째를 갖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좀 있었어요. 둘째 임신 소식에 우리 부부는 얼싸 안고 울기까지 했답니다. 아들 둘, 딸 둘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넷째가 딸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갖



💧
힘든 삼남매 육아 중에
새로운 추억이 생겨
힘이 나요
💧



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형제, 자매는 훌륭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옥씨는 삼남매 육아로 힘들 때가 많아 울기도 했지만, 반대로 든든하게 삶의 즐거움이 되어주는 이들도 아이들이다.

“아빠부터 막둥이까지 모두 쾌활한 성격이에요. 개그콘서트를 즐겨 보는데 일상이 개그콘서트 패러디예요. 서로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가족을 보면 영락없이 개그 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알아주고 인내해주는 반려자가 있어 행복해요

부부는 시부모님 덕분에 만나게 되었다. 김정옥씨가 근무하던 종합병원 이 비인후과에 환자로 오신 지금의 시아버님과 보호자로 오신 시어머님께서 진료 마지막 날 아드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인상 한번 안 쓰고 매번 상냥하게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좋게 보신 것이다. 정중하게 사양했는데도 두 시간을 기다리셔서 부부는 만나게 되었다.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헛된 일을 절대 안 해요. 남편이 제의하는 모든 일은 신뢰가 가죠. 두말할 것 없이 좋은 남편이에요.”

“아내는 결혼할 때만 해도 풍선아트 사업을 하기도 하고 왕성하게 활동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는 바깥활동을 못하게 됐죠.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아내를 대하고 있어요.”

부부는 입을 모아 말한다. 부부란 특별한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싶어하는 부분은 하지 않고, 참아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따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둘만 오붓하게 시간을 갖기 어렵지만 얼마 전에 같은 동네에 사는 분께서 저녁때까지 아이들을 봐줘서 둘만의 외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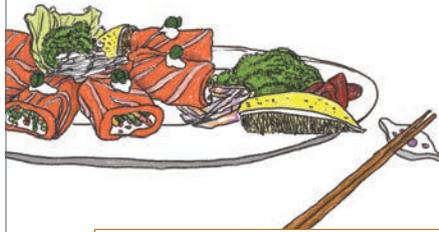
“오백 년 만에 둘만이 한 외식이죠. 그런데 애들이랑 시골벽적으로 먹는 게 일상이 돼서일까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같이 얘기했어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서 뜨겁게 연애했던 시절의 감정을 찾자고요.”

부부는 하고 싶은 게 많다. 특히 편찮으신 양가 부모님을 뵈 때마다 건강을 챙기자고 다짐한다. 지금은 따로국밥처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온 식구가 학교 운동장에 가서 배드민턴도 하고, 큰애가 좋아하는 농구도, 둘째가 좋아하는 축구도 실컷 하는 스포츠 가족이기를 원한다. 어른들 모시고 일본 온천여행도 가고 싶고, 가까운 팔공산 것바위에도 가고 싶다. 당장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다. 몇 달 전 이영목 사우는 캠핑족이 되자며 텐트 등 캠핑용품 한가득 사가지고 왔다. 두 번 캠핑에 좋아하던 아이들을 생각해, 선선히지면 짐을 꾸려 다시 떠날 계획이다.

“나온 김에 수성못에도 들려야겠어요. 오리배 탈 겁니다. 이 이벤트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우 가족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
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모두들
즐겁게 만드는
우리 가족은 개그 팀!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시부모님, 처가 모두에게 잘 하는 아내, 고마워요. 아이들 조금 더 크면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요. 애들아, 공부 잘 하는 우등생이 되기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빈다.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둥이에요.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시다. 가정을 위해서 담배는 줄여줬으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삼남매!!! 너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엄마도 노력할게.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줘. 사랑해~~~! ^^

※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식 이벤트에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 문의 sabo@s-oil.com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은 태동!
 가냘프게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성모야.
 태명처럼 멋지게 살기를 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너를 사랑해~!

행복전도사 사랑스러운 아들

성모에게



성모야 너의 형 진모가 9년 동안 혼자 자라면서 얼마나 동생을 기다렸는지 아니? 작년 10월에 엄마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 엄마, 아빠, 형아가 정말 기뻐했고 행복해했단다. 앞 다퉈 태명을 지으려고 해 투표까지 했는데, 결국 멋지게 태어나라는 뜻으로 “멋진이”라고 지었지. 형아가 너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란다.

성모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전치태반이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하루하루 엄마의 건강, 너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단다. 예정일보다 보름 빠른 7월 14일, 태만하혈로 인해 긴급수술로 너를 처음 맞았지. 그때 아빠는 기쁨의 눈물을 너에게 보이고 말았구나. 엄마는 건강했지만, 너는 ‘심장 부정맥’이었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봐야 했던 너의 모습에 얼마나 애처롭고 걱정이 되던지. 다행히 우리 성모의 건강이 점차 안정되면서 우리 가족은 안도하게 되었단다.

옹알거리며, 말뚱말뚱하게 나를 쳐다보는 너를 볼 때면 행복전도사, 천사가 여기에 와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빠는 미소를 짓게 되는구나. 우리 집안에 행복한 미소를 가져다 준 아들 성모야! 인생이 언제나 기쁘고 아름답지만은 않겠지만 힘들 때일수록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기쁨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고 아빠는 얘기할 수 있단다. 8살 위인 형아랑 나이 차이가 있지만 형의 가르침을 잘 받아 형제애를 돈독하게 하면 두려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행복 전도사 아들 성모야. 건강하고 정의로게, ‘멋지게’ 자라길 바란다. 사랑해, 성모야~!!!



9 Corporate Initiatives

9가지 전사전략과제로
미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바른 생각으로 사분사분 걷는 오솔길

경북 안동 유교문화길-2코스 '선비길'

공자가 창시한 유교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정신은 물론, 삶속 깊숙이 자리한 생활이념이다. 고려에 이어 개국한 조선은 유교를 근간으로 통치이념을 세웠고, 수도 한양은 유교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만든 최초의 계획도시였다. 우리나라 유교의 본고장 경북 안동은 영남사람의 근거지로 유교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학자와 문무고관, 문장가를 배출한 고을답게 서원과 정자, 누각, 살림집에 이르기까지 유·무형문화재들이 잘 보존되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린다. 이곳에 총 39km에 걸쳐 '유교문화길'이 조성됐다. 1코스 '풍산들길' 14.5km, 2코스 '선비길' 13.7km, 3코스 '구담습지길' 10.6km이 그것이다. 이 중 낙동강 상류 비경과 전통문화탐방으로 유명한 힐링 코스, 역사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는 매력적인 '선비길'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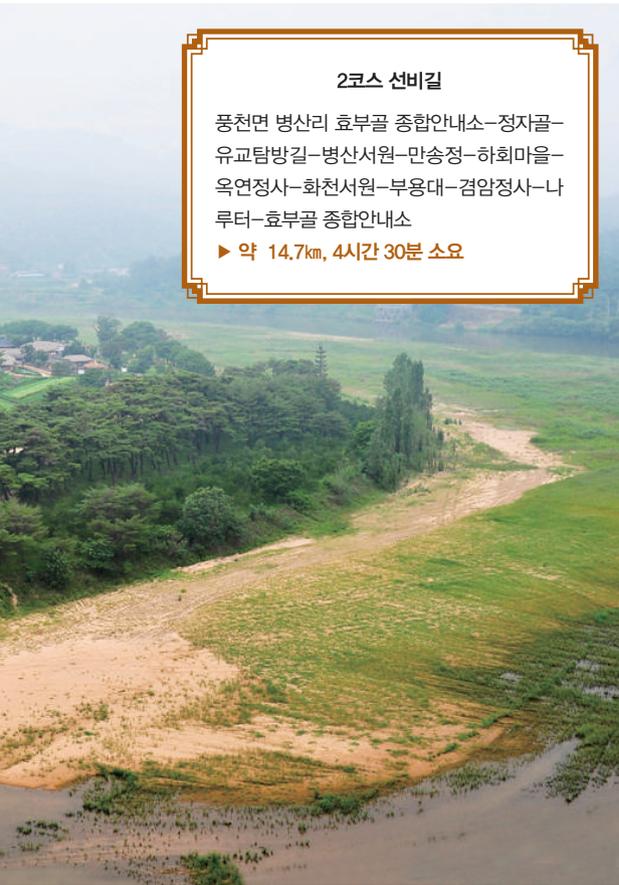
하회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병산서원 방향 300m 지점, 조선 정조 때 '효부가 났다' 해서 효부골로 불리는 종합안내소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고 풍천배수장을 지나 병산서원을 향한 신작로로 들어선다. 넓은 풍산들과 낙동강물이 어우른 어락정 아래, 오솔길 끝에서 오가는 차량이 일으키는 먼지가 뿌얇게 일어난다. 문득 어렸을 적 차 뒤꽂무니를 따라 달렸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걸어가니 한국 서원건축사의 백미이자 2010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병산서원이 있다.

병산서원(사적 제260호)의 원화(院花)는 배롱나무 꽃인가. 여름을 보내는 게 아쉬운 지 남도의 꽃, 배롱나무가 진분홍 꽃망울을 활짝 터트렸다. 강학을 하는 입교당에는 인문학 강의를 들으려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나이 드신 해설사의 이야기에 귀를 종긋하며 경청하는 아이들의 풋풋함을 대견스레 바라보다 사진 몇 장 찍고 자리를 나

2코스 선비길

풍천면 병산리 효부골 종합안내소-정자골-유교탐방길-병산서원-만송정-하회마을-옥연정사-화천서원-부용대-겸암정사-나루터-효부골 종합안내소

▶ 약 14.7km, 4시간 30분 소요



선다. 본래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을 서애 류성룡이 1572년(선조5) 현 위치로 옮겨 많은 학자를 배출했기 때문인가. 조선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살아남아 조선 5대 서원의 하나라는 이력까지 지녔다.

화산을 등지고 낙동강을 마주한 전형적인 배산임수에 자리한 병산서원은 서애 선생의 문집을 비롯, 각종 문헌 1천여 종 3천여 책을 소장하고 매년 3월 중정(中丁: 두 번째 丁日)과 9월 중정에 향사례를 지낸다. 2백 명을 수용하고도 남을 장대한 누각 만대루는 휘어진 나무기둥과 자연 그대로의 주춧돌, 커다란 통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든 계단, 굽이 도는 강물을 닮은 대들보 등이 인상적인데 건물조차 자연의 하나로 여겼던 조상들의 의식을 대변한다. '만대(晩對)'는 두보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 중 '푸른 절벽은 저녁 무렵 마주하기 좋으니[翠屏宜晩對]'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해질 무렵 2층 누각에서 바라보는 낙동강과 병산의 경치는 가히 으뜸이다. 그러나 병산 앞에 펼쳐진 은모래 금모래는 집초들로 무성하여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이제부터 '하회~병산 선비길' 4km 오솔길이 산길과 강변을 따라 나뉜다. 강변길을 택한 길손에게 아름드리나무가 드리운 그늘은 청량감을 선사한다. 마을과 서원을 오가던 유생들이 걸던 길이자 지계를 지고 삶을 개척하던 서민들의 체취가 옷이 배어있는 숲길은 유유자적 강물을 따르며 사색의 공간을 제공한다. 유교문화길의 자랑이자 힐링 코스로 각광받는 이유다. 곳곳에 안도현 시인의 시 '낙동강'과 '허도령과 하회탈이야기', '하회16경'을 소개하는 팻말이 서 길 걷는 재미를 더해준다.

- 1 부용대에 오르면 풍산 유씨 대종가 양진당과 서애 유성룡 선생이 태어난 충효당 같은 고택과 초가, 흙담이 아름다운 하회마을 전경이 조망된다.
- 2 태백물과 반변천이 몸을 섞은 뒤 안동과 풍산들을 적신 낙동강은 제법 몸집이 불어 큰물이 된다. 물이 커지면 마을과 건축물의 크기도 커지는 법. 만대루는 배롱나무가 빨강게 핀 꽃으로 붉게 물들었다.
- 3 정문인 복례문 앞에 서면 자연스레 자세를 낮추고 겸허한 마음으로 앞마당에 들어서게 된다. 그 앞에 보이는 건물이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입교당에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 4 입성 곱게 차려입은 때 이른 허수아비가 길손을 반긴다.





1 화산(火山:꽃피) 남쪽에 드리운 너른 들은 하회마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낸다. 김손들이 걷는 모습도 이를 상징하듯 평화롭다.
 2 하회마을 서북쪽은 다른 곳에 비해 나뭇막하게 열려있어 기가 허하다고 한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겸암 선생이 조성한 소나무숲이 만송정이고, 현재 천연기념물 제473호로 보호되고 있다.

저물녘 나는 낙동강에
 나가 보았다. 흰 옷자락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오래오래 정든
 하늘과 물소리도 따라가고 있었다
 그 때 강은
 눈앞에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이마 위로도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어느 날의 신열(身熱)처럼 뜨겁게.
 〈중략〉
 아아 나는 아버지가 모래벌에
 찍어 놓은 발자국이었다.
 홀로 서서 생각했을 때
 내 눈물 웅얼웅얼 모두 모여 흐르는
 낙동강,
 그 맑은 마지막 물빛이 남아 타오르고 싶었다
 • 시 '낙동강, 안도현'

산중턱을 향한 지그재그 산길은 그리 가파르지 않고 숨이 좀 가쁘다 싶으면 어김없이 나무의자가 있다. 다리쉽하면서 머금은 물 한 모금은 감로수가 따로 없다. 인기척 때문에 뒤를 돌아보니 저만큼 폐달을 밟아 올을 쓰며 올라오는 또 다른 길손이 있어 손을 흔들며 인사를 대신한다. 정상에 있는 육각정자에서 다시 낙동강을 조망하며 땀을 거둔다. 이제 하회마을까지는 2km 남짓한 거리, 다시 발길을 재촉하여 내려오니 너른

논에는 갓 팬 벼들이 바람결 따라 예를 차리기에 바쁘다. 뱃나무 독길로 들어서니 때 이른 허수아비의 입성이 너무 고와 작은 웃음이 터져 나온다. 하회마을 서북쪽, 47만 6천430㎡ 면적의 숲은 풍수지리상 지세가 허(虛)하기에 서애의 형인 류운룡이 강변을 따라 소나무 1만 그루를 심어 인공 숲을 만든 곳. 그래서 이름도 만송정(萬松亭; 천연기념물 제473호)이다. 여름에는 홍수를,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아주며, 사계절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쓰인다. 매년 음력 7월 16일 밤, 강 건너 부용대까지 밧줄을 걸고 '선유(船遊) 줄놀이'를 한다. 밧줄을 타고 참나무 숲의 불꽃이 내려오면서 터지는데, 강물에 비친 불빛은 황홀 그 자체다. 선비들이 뱃놀이와 함께 즐긴 이 풍류는 일제강점기에 중단됐으나 최근 복원된 전통놀이이다. 강변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작은 언덕을 오르면 겸암 선생 학덕을 흠모한 지역 유림들이 세운 화천서원이 있다. 겸암의 위패를 배향하고 봄가을로 향사를 지낸다. 서원철폐령에 훼손됐으나 1996년 복설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굳게 닫힌 화천서원 오른쪽, 부용대 남쪽 기슭에 위치한 옥연정사는 조일전쟁이 일어나기 6년 전(1586),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류운룡이 지었다. 조일전쟁의 시작과 전개과정을 기록한 선생의 징비록(국보 제132호)이 탄생한 이곳은 현재 탐방객에게 전통차를 판매하는 작은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파라솔과 함께 작은 평자가 놓여있는 앞마당에는 서애가 직접 심었다는 노송이 멋지다. 형제애를 나타내는 '서애 오솔길'은 이곳 간죽문을 나서야 하나 아쉽게도 문이 닫혀 있다. 겸암정사를 연결하는 벼룻길, 절벽을 가로지르는 약 300m의 외길을 뒤에 두고 화천서원 옆, '부용대까지 450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팻말 따라 소나무숲길을 오른다. 장난삼아 걸음을 셈하였는데, 이내 헛갈릴 즈음 하회마을과 낙동강이 산태극수태극을 그리는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부용대 전망대에 닿는다. 여기서도 겸암정사까지 1백여m 숲길길이 이어진다. 아침저녁으로 옥연정사에서 겸암정사에 계신 형(류운룡)에게 문안인사를 다녔던 류성룡의 다정스런 발길에 나름 발길을 살며시 포갠다는 사실에 내심 자랑스레 걸어간다. 겸암정사는 명종 22년(1567)에 류운룡이 지었다. 현판 겸암정(謙庵亭)은 퇴계가 직접 쓴 글로서, 이를 귀히 여기고 자신의 호를 겸암으로 삼았다. 바깥채 누마루에 서면 절벽 아래의 깊은 소(沼)와 강 건너 마을이 평화롭다. 이런 정취 때 문일까. 벼슬길을 멀리하고 자연을 벗하며 학문에 전념한 겸암의 진면목을 엿본다. 명종 19년(1564) 4월 퇴계를 따라 청량산에 갔다가 선생이 띄어준 운에 따라 지은 시가 새겨진 빗물에 문득 시선이 멈춘다.

가파른 암벽 붉은 벼랑은 아득하고 깊은데
구름 안개 사라지니 천 길이나 푸르구나
중천에 달은 밝고 산은 고요하고 적적한데
나는 듯이 뛰어 올라 소리 높이 읊었네.

• ‘경차(敬次, 받들어 차운함)’ 류운룡

다시 강변을 나가 배를 타고 강둑을 넘어와서 ‘
강(河)이 마을을 감싸고 돈다(回)’는 뜻을 지닌 하
회마을로 들어선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종환은
택리지에서 “낙동강이 마을을 섬처럼 둘러싸고

있어 ‘마치 물에 뜬 연꽃 형상’의 명당 중 명당이
라고 꼽은 길지”라고 했다. 허씨와 안씨, 그리고 6
백여 년 전 정착한 풍산 류씨가 사는 집성촌이다.
종갓길을 중심으로 남촌과 북촌으로 나뉘고, 1백
여 채의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담장과 길 사이에서
처마를 맞대고 살아간다. 보물로 지정된 양진당과
충효당을 비롯하여 하동고택·연행당·양오당·
화경당(북촌택)·작천고택·빈연정사·원지정사
같은 대표적인 고택들이 모두 남향이 아닌 강을
향해 있다. 자연에 순응한 이곳만의 특이한 가옥배
치를 보여주고, 특히 흙집과 돌담, 골목길이 참 정
겹다. 무의식중에 품었던 고향의 원형이 꿈틀던
다. 돌담 아래 꽃잎이 줄기 세워 건강하게 꽃을 피
운 맨드라미가 푸근하게 다가온다. 마을을 나와
왼쪽 오솔길로 들어서니 장터로 향한 숲길, 그곳
작은 전망대에서 안씨부부 이야기를 떠올린다.

고려시대 때 가난한 안씨부부가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길가에 쓰러진 노승을 집으로 모셔와
극진히 치료를 해주었다. 원기를 회복한 노승은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 명당 하나를 잡아주겠다
면서 “후손들 중에 삼정승이 나는 곳과 천 석을
거두는 땅 가운데 한 곳을 고르라” 했다. 안씨부
부는 가난 때문에 “당년에 천 석을 거둘 수 있는
터를 잡아 달라”는 말에 노승은 묘터를 잡아주었
고, 부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곳으로 이장했
다. 그해 여름 흉수로 물길이가 바뀌더니 묘 아래편
에 넓은 들이 생겼다. 그곳에 피 씨를 뿌리니 1천
석의 피를 거두었다. • 안씨부부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는 것이 유교의 기본이다.
안씨부부는 따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수오지심·시양지심·시비지심 모두
를 지니고 있었다. 노승에게 보인 행동은 사람으로
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으리라. 기본 좋은 상념
은 다양하고 맛들어진 장터의 토종음식으로 전
이되어 허기를 달래고, 세계의 탈과 탈문화를 살
필 수 있는 ‘하회동세계탈박물관’을 둘러 효부골
종합안내소로 회귀하면서 일정을 정리한다. 🌻



3

3 부용대는 높이 64m 절벽으로 태백산
맥의 끝부분이라 한다. 하회 북쪽에 있
다 하여 ‘북애라 불렀으나 하회마을의
모습이 연꽃 같다 해서 부용으로 부르
다. 이곳에 오르면 하회마을을 조망할
수 있다.

4 기와는 기와대로, 초가는 초가대로 부
드러운 선을 자랑하고 그 사이 골목길
은 순한 자연 그 자체다. 기와와 초가
가 맞대어 이룬 골목은 그래서 정이 깊
고 마을과 사람들은 더욱 아름답다.

5 화천서원에서 부용대, 겸암정사를 잇
는 400여m 길은 소나무와 잣나무로
이뤄진 숲길이다.



4



5



탐스슈즈 창립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한다!



착한 아이디어로 거둔 신선한 성공

중부영업지원팀 김현호 사우의 롤모델
기업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기업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Blake Mycoskie)'

글 | 김현호(중부영업지원팀)

2006년 여름,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던 중 아이들이 맨 발로 몇 킬로미터씩이나 걸어 다니는 걸 봤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했다. '신발을 줘야겠어. 어떻게 주지? 내가 직접 신발을 만드는 거야. 신발을 계속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한 켤레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야.'

기업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를 처음 알게 된 건 대학 시절이었다. 하루는 친구가 허름한 짚신(?)을 신고 학교에 왔길래 어디서 이런 후줄근한 신발을 구했느냐며 장난을 쳤다. 친구는 차근차근 신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누군가가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하면 제3세계의 어린이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회사가 있다고, 자신이 이 신발을 구매했기 때문에 제3세계의 어린이가 누군가에게 신발 한 켤레가 기부되었을 거라고 말이다. 바로 그 순간이 '내일을 위한 신발, 탐스슈즈(TOMS, Tomorrow's Shoes)'와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나의 롤모델인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를 처음 알게 된 때다.

2006년 설립된 탐스슈즈는 빠른 시간에 성장했고 곧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얼핏 보면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아르헨티나의 전통 신발인 알파르가타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기부를 통한 행복'이라는 가치를 고객과 함께 창출해하는 사업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착한 아이디어로 신선한 성공을 거둔 그를 보며,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곤 한다.

일대일 기부공식 One for One, 기부가 곧 기업활동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2006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들렀다. 아르헨티나는 음악, 색깔, 음식, 사람들 모두 매우 아름다웠지만 도시를 벗어나는 순간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됐다. 많은 어린이들이 돈이 없어 신발을 사신지 못하고 맨발로 먼 거리를 걷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또한 오염된 땅을 신발도 없이 걷는 어린이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이코스키는 자신이 현지에서 신고 다닌 아르헨티나 민속신발 '알파르가타'에서 착안한 신발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전달했다. 내일을 위한 신발(Tomorrow's Shoes), 이른바 'TOMS'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과정이다.

신발이 한 켤레 팔릴 때마다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정책은 파산을 향한 지름길로 보였다. 그런데 유명인들이 '소외계층을 돕는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고자 애플 신발을 구매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탐스슈즈는 단지 생활용품이나 패션 아이템을 넘어 사회 참여의 상징이 되었다. 첫 해 여름에는 1만 켤레를 팔아, 1만 켤레를 기부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비로소 신발을 신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수도 늘었다.

신발 기부가 제3세계 지역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신발 회사가 아니라 기부 회사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한 켤레 판매에 한 켤레 기부라는 기본공식은 유지하면서 기부방법을 다양화했다. 기부용 신발의 1/3 이상은 지역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기부의 대상이 되는 케냐, 인도, 에티오피아 등 국가지역에 생산시설을 세웠다. 지역민을 고용해 실제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었다. 아이티의 아티스트와 작업하기도 하고 각국의 NGO와 협력해 오지까지 신발을 전달하기도 한다.

맨발의 아이들이 걸리는 상피병을 퇴치하기 위해 현지 진료소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다가 시력 부분을 생각하고 2011년에는 안경회사인 '탐스아이웨어'를 설립했는데, 안경 한 개를 팔 때마다 가난한 지역 주민 한 명에게 안경을 만들어주거나 시력회복 수술을 시켜주는 사업을 했다. 탐스가 그동안 기부한 신발은 1천만 켤레에 이르고, 시력회복을 시켜준 사람은 20만 명에 이른다. 🌟



과거로 떠나는 신나는 시간여행!

군산시간여행축제



일 정 2014년 10월 3일(금) ~ 5일(일)

저녁 7시 ~ 밤 12시

장 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문 의 군산시, <http://festival.gunsan.go.kr>

근대문화유산의 요지 '군산'

군산은 백제시절 '벗골'('벼의 고장'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라 불렸다. 호남평야가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양의 벼가 수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산에는 아픈 상처가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에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혹독한 쌀 수탈이 이뤄질 때, 군산은 호남평야

군산에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



에서 수확되는 모든 곡식을 모아 일본으로 반출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래서 군산에는 일본인들이 자리를 잡은 경우가 많았고 오늘날까지 일본식 건축물들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 군산에서는 곳곳에 남은 당시의 흔적들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던 국민들의 고통을 되새기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군산시간여행축제'를 통해서다.

**축제 속
살아있는 역사**

올해의 '군산시간여행축제'에서 는 근대 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구비될 예정이다. 소설 '탁류'를 소재로 만든 '남승재가 만드는 독립자금', '초봉이의 하루' 프로그램으로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드라마 '각시탈'을 소재로 한 '각시탈과 보물찾기'는 방문자가 직접 참여하여 독립군과 일본순사의 숨 막히는 대결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력거 체험'과 '근대놀이마당' 등 근대 역사를 소재로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시골벽적인 축제보다 여유로운 사색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불길 시간여행'을 추천한다. 서로 다른 주제로 만들어진 4개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 아름다운 군산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시간여행캠핑'을 통해 가족과 함께 축제와 캠핑을 즐길 수도 있다. 이처럼 군산시간여행축제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군산 곳곳에 살아있는 역사를 느끼고 사색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축제**

이 축제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와 근대역사라는 다소 지루하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현재와 잘 조화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근대음악을 색소폰으로 재해석하여 들려주는 '근대 음악 페스티벌'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군산만의 특색을 살린 공연이다. 이외에도 '동춘서커스', '모던 매직쇼'와 '거리예술공연' 등의 공연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기에 군산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우리가 쉽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 🌻



부모 세대의 놀이 '자치기'

군산 직영주유소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군산호수 방향으로 가는 709번 지방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다. 올 4월 개업해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유소 면적이 넓은 셀프주유소로 충전소를 겸업한다. 흠집이 나지 않는 차별화된 세차인 노브러쉬세차기 서비스를 가동 중이다.

전북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154 (쌍봉리 742-65)
☎ 063)471-5144

군산시간여행축제
오실 때
군산 직영주유소
꼭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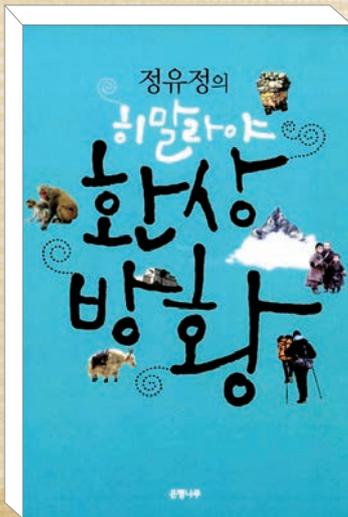
70년 전통의 국내 最古 빵집, 이성당!

이성당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빵집이면서 전국 5대 빵집으로 손꼽힌다. 일제시대 일본인이 열었던 과자점이 현재 이성당의 시초. 여러 빵이 있지만 야채빵과 팔빵이 가장 유명하다. 1인당 살 수 있는 빵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금방 팔리니 빨리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다.

전북 군산시 중앙로1가 12-2 (중앙로 177)

전주지사 김석배 사우





길치 소설가

안나푸르나에서 길을 찾다

히말라야 환상방황

“나 안나푸르나 갈 거야.”
선택사항이 아니야. 생존의 문제라고.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소설가 정유정은, 〈내 심장을 쫓아〉로 제5회 세계문학상을 받고 장편소설 〈7년의 밤〉과 〈28〉이 주요 언론과 서점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크게 주목받고 있다. 단편소설 발표 없이 네 편의 장편소설로만 독자와 만난 소설가가 여행 에세이집을 발간했다. 〈히말라야 환상방황〉이다.

정유정 소설의 주인공들은 남도의 섬, 저수지 아래로 잠든 마을, 무궁한 속을 알 수 없는 해저, 개썰매를 타고 달리는 알래스카 등 언제나 낯선 세상을 여행 중이다. 소설만 봐선 세계여행 전문가일 것 같지만 사실 이번 히말라야 여행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여권도 없었던, 해외여행 문외한이다. 그런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 〈내 심장을 쫓아〉의 주인공 승민이 마지막까지 그리워하던 신들의 땅 히말라야를 첫 해외여행지로 삼았다. 네 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하며 질주하듯 달려온 정유정은 지난해 〈28〉을 탈고하고 극심하게 내부에너지가 고갈되었다고 느꼈다. 해결 방법으로 찾은 힐링 장소가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후배 소설가 김혜나와 함께 떠난 17일간의 환상종주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환상방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여행에 서툰 작가의 실수는 포기하지 않는다. 좌충우돌 여행기는 오히려 그의 소설 못지않은 감동으로 전해질 정도. 더불어 작가의 과거 이야기가 더해지며 현재의 여정과 엮인다.

길 위에서 정유정은 계속 질문한다. 여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세상에 맞설 수 있겠는지. 힘이 소진되어버린 자신을 다시 링 위에 올라선 선수로 바꿀 수 있겠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고야 만나. 작가에게 힘을 되찾아준 목소리, 그 답을 찾아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히말라야 환상방황〉 이렇게 읽었습니다

김효주(프로젝트구매부서)

멀리 떠나는 여행을 자주 경험하기 어려워 주로 책을 통해서 세상을 보곤 했다. 어쩌면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히말라야가 다큐멘터리에만 나오는 그저 힘든 여행지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작가도 나처럼 해외에 자주 가보지 않은 사람이어서 작가의 여행 준비와 도전 과정, 용기를 얻는 소소한 부분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여행만은 아니겠지만 진정한 힐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만의 안나푸르나에 꼭 도전해 보고 싶다.

 본 도서는 지난 8월 1~31일 본사 자료실에서 높은 대여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히말라야 환상방향〉와 함께 즐기면 좋을 타 장르 콘텐츠

사진집

히말라야, 바람을 닦다 바람을 닦다
인공구조물 대신 바람이 사는 풍경
 글·사진 김영실 출판사 서해문집
 출판년도 2010



〈히말라야, 바람을 닦다 바람을 닦다〉는 단순히 히말라야의 이국적인 풍경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히말라야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람과

빛을 통해 원주민의 진솔한 삶을 담아내고 있다. '무심히 생명을 띄우고, 또 무심히 생명을 걷어가는 히말라야의 눈(雪), 물(水)을 보고 싶었다. 이곳에 머문 바람의 소리를 보고 싶었고, 히말라야가 된 바람 같은 인간들의 눈을 보고 싶었다.'는 김영실 작가의 말대로 사진작품 안에는 투명한 바람과 그 바람을 닦은 사람들이 담겨 있다.

영화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
새로운 자신을 찾는 쓸쓸한 영혼을 보라
 감독 전수일 주연 최민식
 개봉년도 2009



네팔 청년의 유골을 고향에 전해주기 위해 히말라야를 찾아가던 최는 설산 아래 산꼭대기 외딴 곳에 있는 네팔 청년의 고향집에 도착했지만 차마 그가 죽었다고 말

하지 못한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된 최. 상처받고 외롭고 쓸쓸한 최는 대자연 속에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있는 작품으로 배우 최민식의 내면연기가 돋보인다.

전시

VIP 1950-60 빈티지 사진전
1950-60년대 과거로의 힐링 환상방향
 일시 2014년 6월 10일~10월 12일
 장소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관람료 무료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1960년대 서울의 옛 모습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당시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VIP 1950-60 빈티지 사진전'에서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대 최고의 사진작가로 꼽히는 현일영, 이해선, 이형록, 한영수, 홍순태, 주명덕 작가 등 6명의 사진을 통해 우리는 사진 속 마음의 고향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게 된다.

한강변 모래밭 위에 뒤집혀 놓인 조각배 세 척이 보이는 사진, 사진 속 머리에 무언가를 이고 걸어가는 여인은 포대기로 아기를 업었다. 서울의 명동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패션의 거리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영화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의 한 장면
 ◀자연에 순응해 자연 속에 사는 히말라야 원주민

드라마와는 다른 올인*의 현실

도박 중독

누구나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도박에서 큰돈을 얻는 상상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명절에 친척들과 윷놀이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 번 이기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 끝도 없이 도박판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사람이 존재한다. 드라마 속 환상과는 달리 도박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으로 밀어 넣는다.

* 포커에서 가지고있던 돈을 한판에 전부 거는 일

- 글 읽는 순서
- 알코올 중독
 - 스마트폰 중독
 - 담배 중독
 - 쇼핑 중독
 - 카페인 중독
 - 게임 중독
 - 탄수화물 중독
 - 관계 중독
 - 도박 중독
 - 성형 중독
 - 운동 중독
 - 마약 중독



01. 도박중독이란?

도박중독을 정신의학에서는 '충동조절장애'로 분류한다. 본인이 절제를 하려해도 충동을 이기지 못해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정서적인 장애로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구한다. 실제로 도박중독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을 살펴봐도 우울증을 비롯한 주의력 결핍, 성격장애, 다른 중독성 질환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도박중독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과의사나 전문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 한국의 도박중독자는 20세 이상 성인인구로 265만 명으로 추정되며 당장 치료가 필요한 문제성 도박중독자가 48만 명 수준이다.

02. 사람들이 도박중독에 빠지게 되는 'BIG WIN'의 법칙

도박을 통해 한 번에 많은 돈을 따는 것을 흔히 'BIG WIN'이라 부른다. BIG WIN을 통해 느낀 짜릿한 흥분이 강렬하게 남아 도박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처음 도박을 접한 사람이 많은 액수의 돈을 획득할수록 도박중독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도박중독에 빠지면 설령 당장 돈을 잃어도 단 한 번으로 모두 만회할 수 있다는 BIG WIN의 환상을 가진다.

BIG WIN이 도박중독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도박중독은 개인·사회·유전적 요인 등 원인이 복합적이다.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도박을 이용하기도 한다. 승부의 긴장감과 승리의 쾌감은 현실의 고민,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많은 현대인들이 도박중독에 빠져든다.

03. 도박을 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중독자들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도박을 그만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쉽게 치료에 응하지 않는다. 때로는 도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쾌감을 잃게 될까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단 스스로가 도박에 중독된 게 의심되거나 중독자라는 판단이 들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인지치료, 약물치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본부 및 서울지역센터를 비롯해, 경기, 부산, 강원, 광주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문을 두드리자.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와 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도박중독자들이 도박중독을 벗어나 건전한 여가 속에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Tip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도움처

도박중독 예방·치유 상담전화(24시간) : 136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지역센터(서울 종로)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강원 강릉)

경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경기 수원)

광주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광주 서구)

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부산 동구)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강원 정선)

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경기 광명)

도박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아래 문항 중 7개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는 도박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 도박중독 치료의 시작은 중독에 대한 인식이므로 7개 이상의 문항을 선택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한다.

-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 도박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 도박 때문에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 도박이 당신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까?
- 도박을 하고 나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 빚을 갚기 위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박한 적이 있습니까?
- 도박이 당신의 야망이나 능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까?
- 잃은 돈을 다시 도박을 통해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까?
- 돈을 따면 더 돈을 많이 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껴보았습니까?
- 대체로 가지고 있던 돈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도박을 했습니까?
-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 도박을 하려고 돈이 될 만한 것을 판 적이 있습니까?
- 도박밀전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까?
- 도박이 당신과 가족들의 생활을 소홀하게 만들었습니까?
- 애초에 예상한 시간보다 더 오래 도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불안이나 걱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 도박밀전을 마련하기 위해 나쁜 일을 생각해보는 적이 있습니까?
- 도박이 당신의 수면을 어렵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 의견대립, 실망, 좌절 때문에 도박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도박으로 한 밀전 잡아보겠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도박문제 때문에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해보는 적이 있습니까?

출처 한국단도박모임(도박중독자 회복모임)



독자퀴즈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최우혁 RUC추진1팀
강학현 Aromatics생산2과
양재원 해상출하과
정현길 박달주유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USB저장장치

홍성훈 에너지관리팀
이상현 검사1과
이동규 진주시사 이성택 사우 자녀
박현주 산정주유소(전남 목포시 양율로)

손 모아 만드는 사보 꿈 모아 그리는 내일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 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주요소식> 담도폐쇄증 어린이 치료비 전달
 저소득층 희귀질환 환자를 후원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활동에 감명 받았습니다.
 유채원(고객.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



<주요소식> 구도일 캐릭터 전시회 참가
 구도일 캐릭터가 좋아요. 구도일 여자친구도 만들어 주세요.
 한시연(제주저유소 한재수 사우 자녀)



<최강 팀> 공정Upgrading추진부
 회사의 큰 투자사업 중 하나인 SUPER 프로젝트에 대해 한층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구은정(해이운영팀)



<소식 모아보기> 임직원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업에도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최은희(군산저유소 이운세 사우 부인)



<햇살나눔> 캘린더
 지난해 '햇살나눔대학생홍보대사'로 활동해 밝기에 사회공헌 기사에 더 크게 공감했습니다.
 김수진(유황1과 김대기 사우 자녀)



<가족이야기> Aromatics생산2과 남호천 사우 가족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정다운 가족의 사연을 훈훈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장현이(고객서비스팀)



<나의 롤모델> 소프라노 조수미
 인생을 살면서 롤모델을 찾아 닮고자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귀봉(금동주유소.전북 김제시 금산면)



<야호! 축제다> 합천 고스트파크축제
 각 지역의 축제 상황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좋습니다.
 장일섭(Aromatics생산1과)



<걷고 싶은 길> 강원도 대관령 옛길
 예전에는 동해바다를 보려면 구절양장 대관령 길을 돌아돌아 올라갔지요. 올 여름 가기 전에 호젓하게 옛길을 걷고 싶네요.
 김기환(구매팀)